

SK SMART CITY

SearchLight

연구원. 신서정 / 3773-9978, seojeong@sk.com

연구위원. 손지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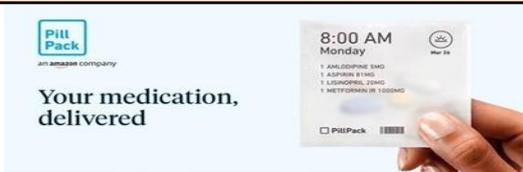
아마존 'The Everything Store', 처방의약품도 배달해드려요

관련 뉴스 요약 "아마존 '칠전팔기' 처방의약품 배달 초읽기, 한국은요?"

- 아마존이 온라인약국 '필팩' 인수와 함께 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1년만에 배달서비스 시행 예정
- 이를 통해 기존 아마존 프라임 고객층이었던 젊은 디지털 세대에 노령층 고객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17년 약 12개 주의 약국 면허 취득 등 제약산업에 꾸준한 관심 행보. 확보 의료 데이터 기반, 확장 진출 예상

Implication

'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' 시작 안내 메일



Meet PillPack, a new member of the Amazon family.
Your medication sorted by the dose and delivered every month.
Our service and shipping are free - you only pay for your medication.



자료: 아마존, 한국바이오경제센터

스마트헬스케어 # 물류 # 데이터 # 구독경제

- 'The Everything Store'라 불리는 아마존마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고전을 겪어왔는데요.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구조의 특수성 및 진입장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.
- 이번 아마존의 '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' 시작 안내 메일로 아마존이 헬스케어 콜드체인 구축에 성공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UPS, FedEx등도 의약품 당일 배송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이네요.
-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 및 유관 데이터가 가지는 함의 고려 시, 아마존의 헬스케어 사업 확장 진출이 예견됩니다. 이미 온오프라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연계 배송 서비스를 진행중인 중국의 알리바바, 바이두 등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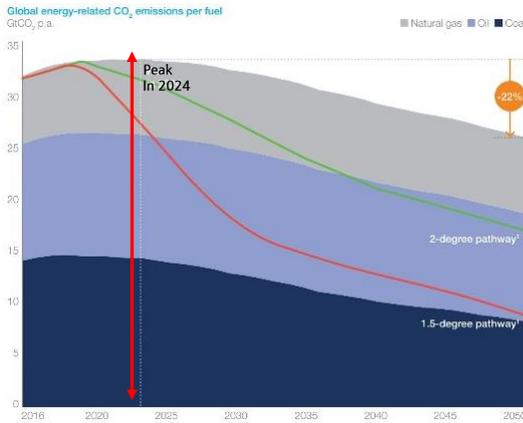
스마트시티가 되었을 때, 정말로 환경오염이 개선될까?

관련 뉴스 요약 “中 '탈석탄 가속'...美 엑손모빌서 20년간 LNG 수입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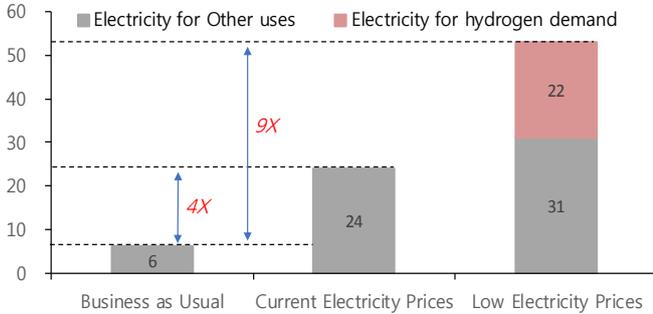
- 중국이 환경에 덜 해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. 양회를 통해서도 거듭 강조
-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로부터 20년간 액화천연가스(LNG)를 공급받기로 계약 (연간 100만t 규모)
- 中정부 환경오염 유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. 실제로 LNG 수입량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있는 국가

Implication

글로벌 에너지 탄소배출량, 24년F Peak전망



Annual production of carbon-neutral electricity in 2050 (exajoules)



자료: Mckinsey

친환경에너지 # 환경

- 스마트시티가 대두된 배경으로 환경오염을 빼놓을 수 없겠죠. 실제로 스마트시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라 볼 수 있는 ‘중국’은 매년 양회를 통해 ‘환경’ 이슈를 매우 강조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.
- 그렇다면 ‘에너지 변혁, 석유의 최대 수요처인 도로수송에서 EV의 등장, 스마트빌딩의 출현’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시티의 탄생은 실제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까요?
-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(CO₂ 배출량 24년 Peak Out/ 50F -20%). 단연 가장 큰 기여국은 중국입니다. 대체 에너지 측면에서, Decarbonization 을 위한 전기사용량이 4X~9X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이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